

의사결정과 권력구조에 관한 이론적 고찰

Research on the Decision Making and Marital Power Structure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이정우

Dept. of Home Management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professor: Lee, Jeong Woo

숙명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 장병옥

Dept. of Home Management

Sook Myung Women's University

Assistant: Chang, Byung Ok

目 次

I. 서론	1) 연대별
1) 문제제기	2) 내용별
2) 연구목적 및 방법	3) 연구방법별
II. 이론적 접근	IV. 의사결정 및 권력구조의 특성
1) 자원이론적 측면	V. 의사결정과 권력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
2) 교환이론적 측면	VI. 결론
3) 체계이론적 측면	참고문헌
III. 의사결정과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동향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basic data for the more reasonable and successful home management through understanding decision-making pattern that is the degree of their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and their joint decision-making.

Also, this study is the preliminary research for more scientific and wider studies on the Decision-Making and Marital Power Structure in Korea.

This study make investigation into decision-making and marital power which is published on th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and th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and thesis for a degree from 1960's to 1987.

As a result, the higher wife's age, education level are the more their participation. The increase of the wife's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can be regarded as the affirmative phenomenon

in the decision-making can be regarded as the affirmative phenomenon that their status are raised in home management and joint decision are carried out.

In 1970's, not only the generalization of the empirical studies have been increased but also the general theories (resource theory, exchange theory, system theory) have been developed.

I. 서 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취업여성의 수 증가, 산아제한 및 대중교육제도의 확대등으로 인하여 여성의 생활주기(Life Cycle)는 변화하였으며 평등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 형성 및 부자관계를 중요시 하였던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의 붕괴 및 핵가족화등은 현대 부부간의 권위구조 및 의사결정에 변화를 주고 있다.

이와같이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역동적인 가족은 의사결정과 결정수행 활동을 통해 두 가지 기능-가정의 안정성 유지와 비파괴적 변화 초래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족은 가치체계 형성, 목표결정, 자원의 사용방법등을 계속 결정해야하는 기회와 책임을 지게 된다 (Paolucci, Hall & Axinn 1977, p6) 또한 실제 가정경영시 끊임없는 의사결정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계속 강조되어오고 있다.

오늘날 가정관리행동은 주로 가치추정과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관리행동의 주축이 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성공적인 가정관리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는 가족 및 가정생활 향상 및 행복을 증진시킨다.

따라서 의사결정에 관한 기존연구는 대부분 주부를 대상으로 의사결정영역에 따른 의사결정권 및 참여도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연구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960년대 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국내논문들을 중심으로 부부간의 의사결정권과 이에 따른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내용, 조사대상, 자료처리등 연구방향과 문제점을 중

합적으로 검토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예측해 보며 의사결정 및 가족권력구조에 관한 연구에 기본적인 토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는 ① 각 대학 석사학위논문, ② 각 대학 학술지, ③ 대한가정학회지, ④ 한국가정관리학회지등에 발표된 총 34편이다. 가정학의 학술지와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기 때문에 각 기관의 연구보고서와 기타 연구논문등은 제외되었다는 점을 본 논문의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II. 이론적 접근

미국의 가정학계는 1950년대 부터 가정관리학 분야에서 '의사결정' 문제를 활발히 연구하고 교육하기 시작한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후반 사회학자들에 의해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75년 이후 부터 가정학자들에 의하여 연구가 활성화되고 지속되어왔다.

가족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Blood 와 Wolfe(1960)가 제시한 자원이론(資源理論: Resource Theory)과 Heer(1963)에 의한 교환이론(交換理論: Exchange Theory) 그리고 국가간의 비교연구결과 문화적 규범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Rodman(1967)의 규범적 자원이론(規範的 資源理論: Normative Resource Theory)에 의거해서 의사결정의 유형과 행동양식에 관한 연구가 사회학과 가정학의 분야에서 쫓점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본 章에서는 자원이론(규범적 자원이론 포함), 교환이론 및 역동적인 체계내에서 가정

관리학의 연구가 시도되고 있는 체계론적인 측면에서 부부간의 의사결정 및 권위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자원이론(資源理論: Resource Theory)적 측면

Blood & Wolfe는 “부부간의 권력원천은 자원에 있다”는 자원이론을 바탕으로, 가족의 권력은 가정생활에 영향을 주는 결정능력속에 뚜렷이 나타난다고 전제하고 가정내의 중요한 결정을 누가 하는가를 관찰해서 그 가족의 권력구조를 파악하려는 입장이다. 즉 자원이론이란 권력은 개인이 지닌 자원의 상대적인 양에 비례한다는 가정하에 권력을 의사결정행위로 측정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상대적 자원이론) (윤현봉 1985, p4).

상대적 자원이론은 각 배우자가 소유한 자원의 상대적인 양에 초점을 두고 곧 권력의 양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자원이란 “한쪽 배우자(A)가 상대방(B)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써 상대방(B)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그 목적달성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Blood & Wolfe 1960 p12). 한편 Rodman (1970)은 자원이론을 수정하여 “문화적 맥락적인 자원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배우자가 각기 지닌 자원, 능력도 중요하지만, 권력이 될 수 있는 자원의 분배는 각 사회의 문화적인 기대가 다르기 때문에 가족구조성향도 다르게 나타난다는 입장이다(규범적 자원이론).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자원과 권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자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원을 경제적 자원 외에 규범적 자원(자타가 공인하는 합법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권위있다고 생각하는 것), 정서적 자원(타인에게 의존하는 성향, 사랑), 인적 자원(개인의 용모와 성격), 인지적 자원(권력의 지각이 자타에게 미치는 영향)등으로 분류하였고(이영숙 1985, p389), 이밖에 사적(Personal)자원, 감정적 자

원등이 있다(McDonald 1980, p113).

자원은 가족내에서 계속적으로 가족구성원과 상호작용을 통해 교환되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충족 뿐만아니라 가족의 목표성취에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관계에 필요한 자원을 많이 공급한 편이 권력을 많이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상대적 자원이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온죽(1977, p105)은 가족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수행에 미치는 부부의 영향력 정도와 의사결정행위를 포함하는 배우자의 가족내 행동은 각자가 가진 자원-교육정도, 직업, 수입정도 및 사회참여정도-에 따라 규제되고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자원이론 입장에서 부부간의 상대적 지위와 권력을 분석한 경우는 Blood & Wolfe (1960), 한남제(1970), 최재석(1971)의 연구등이 있다.

2) 교환이론(交換理論: Exchange Theory)적 측면

Heer(1963, 133-139)는 부부의 의사결정에 교환이론을 적용하여 개인의 자원이 부부관계에 더 많이 공헌하면 그는 대안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를 갖게되고 권력을 더 많이 갖게될 것이라고 하였다. 즉 자원과 실력이론을 수정하고 교환이론을 전개하여 의사결정과정에 내포된 심리적 사회적 통제 메카니즘을 보다 정교화 시키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윤현봉(1985, p10)은 교환이론의 모체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개인은 자신의 보상(reward)을 극대화하고 댓가(cost)를 극소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배우자 특히 아내의 행동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 중의 하나는 결혼대신에 주어질 수 있는 선택가능성(Alternative to marriage)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의 선택가능성이 많은 사람은 또 하나의 중요한 자원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Heer의 교환이론은 실제적인 家族의 力學(Family dynamics)에 접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

었으나, 교환의 동적인 힘, 즉 자원의 획득으로 얻어지는 이익이나 자원의 손실로 초래되는 손해 같은 Cost의 개념을 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원이론에 널리 통합되지 못하였다(김규원 1984, p12).

이러한 교환이론을 중심으로 한 연구로서 Sa-filios-Rothschild(1976, 355-362)는 '사랑'이란 자원은 사회경제적 수준의 자원이 높지 않은 여성에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Scanzoni(1968, 452-461)는 교환맥락에서 자원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 결합을 시도하여 가족간의 권력 상호작용과정에서 자원과 권력의 교환을 설명하였다. 또한 조혜정(1981, 37-47)은 취업·비취업 주부의 권력관계를 교환이론 모형으로 접근하였다.

대부분 부부의 권력연구들은 초기에는 부부가 가진 자원에 비교한 자원이론적 접근을 하였으며, 70년에 들어서는 교환이론·규범적 자원이론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경향이다.

3) 체계이론(體系理論 : System Theory)적 측면

체계이론은 균형(Balance), 항상성(Homeostasis) 평형(Equilibrium), 전체성(Wholeness)을 중점으로 하는 구조-기능주의에서 유출되었다(Hill EW 1981, p7).

시스템(system)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부분들을 조화시킨 세트(Set)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을 가족에게 적용한 것이 체계적 접근방법이다. 즉, 가족은 개방되어 있으며 환경에 적응해 가면서 성장·유지되는 시스템이라고 보았으며, 또한 가족시스템을 Open System 이라고 한것은 가족이 주변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까닭이고, 가족이 사회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성장·유지되고 있기때문에 Adaption Growth Supporting System 이라고 하였다(장명욱 1984, p7). 이밖

에 가족시스템은 인적 시스템(Personal system)*과 관리적 시스템(Managerial system)**의 2개의 하위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며 이 하위시스템은 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하고있다.

가정을 하나의 체계로 볼때, 가정은 정적 특성(morpho static)과 동적 특성(morphogenic)으로 이루어진 개방체계로서, 이는 "구조적 특성"과 "행동적 특성"으로 설명되어지고, 가족체계는 정적 특성으로 인하여 환경과 구분되며, 동적 특성으로 인하여 환경과 상호작용 또는 가족체계내의 상호작용을 하게된다(윤숙현·문숙재 1986).

즉, 체계이론은 체계(system)내에서 또는 체계들간의 관계에 관련된 것으로 상호관계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Paolucci, Hall 및 Axinn(1977, p24)은 가족의 의사결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생태학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생태계로서의 가족체계는 개방체계 또는 행동체계로서 이해되는데 가족체계의 개방성은 환경과의 관계하에서 가정의 위치를 파악하게하며, 가족체계의 행동성은 가정을 역동적인 단위로 이해하게 한다(윤숙현·문숙재 1986, p12).

하위체계들간의 관계에서 볼때 부부의 역할구조를 산출(output)로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특성을 투입(input)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의 관계는 자원이론 및 교환이론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적용되어 왔다.

Ⅲ. 의사결정과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동향

196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연대별, 내용별, 연구방법별 부부간의 의사결정참여 및 유형과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인적 시스템(Personal System):개인의 가치관 형성, 성격개발, 자녀의 사회화 역할을 하는 영역이며, 지식, 에너지 등의 자원으로 기동력의 역할을 한다.

**관리적 시스템(Managerial System):수단적 활동 영역으로서 가정관리의 초점이 된다.

1) 연대별

의사결정의 연구에 대한 흐름을 살펴보면 1945~50년대에는 소비자의 의사결정등으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60년대에는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새로운 focus로 부상되고 70년대 후반에 이르러 가정학에서 가정생활내에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즉, 가정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생활방법과 기준에 대해서 의문이 일어나는 등 생활방식의 다양화가 연구대상이 된 것이다.

1970년초에는 사회경제적 변인, 상호작용적 변인 등의 상호중요성을 측정하는 연구가 주축을 이루었고, 1970년 후반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적 변인보다 사회심리학적 변인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지속되었다.

가존에 발표된 논문을 연대별*로 살펴보면 1967년 문승규는 한미 양국의 농촌가족을 몇가지 중요한 사회적 경제적 변인에 관하여 비교·고찰하고 양국가족(미국·한국)내에 있어서의 의사결정 유형과 가구주의 사회심리적인 측면을 비교분석하였다.

1971년 최재석은 가족내의 의사결정권, 가정의 대표권 및 관리권을 조사하여 권력구조를 분석하였다.

1976년 윤복자는 가족계획을 위한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로 가정을 중심으로 즉 부부가 하는 가족계획에 관련된 여러 의사결정에 대한 것과, 부부의 충분한 의사소통이나 정보교환에 대한 기술향상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성하였다.

1977년 이한기는 농촌에서 부부간의 권력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농촌지도사업이나 가족계획사업에 있어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누구이며,

또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조사하였고, 부녀자들이 농사일에 대한 결정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제시하였다. 한편, 서병숙은 10대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부의 학력이나 생활정도의 차이, 가족간의 만족도 여부가 가정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연구하였으며, 이은숙은 한국의 가족구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검토한 바, 그 변화는 근대화의 일면이라는 것과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근대화의 촉진요인으로 보았으며, 전반적으로 가족권위구조 유형을 분석하였다.

1978년 김복길은 가정생활내의 의사결정에 가족원의 참여 한계를 어디까지 하고 누가, 어떻게 결정하며 행동에 옮겨지는가를 조사하였다. 한편 임희규는 가정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특히 주부들의 가정관리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도 내지 결정권이 어느 정도 이르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1980년 고도임은 가정학 연구의 흐름을 연대별로 설명하였고, 현재 가정관리학에서의 의사결정 문제를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김정옥은 부부간의 역할분화가 어떤 양상을 띠며, 그 의미와 역할분화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였으며, 역할분화의 양상에 따라 부부간의 권력, 권위관계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1981년 임정희는 가정경영시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부중 누가 더 권력이 우세하며 자녀에 대해 누가 더 권위적인 존재인가를 조사하였으며, 1982년 안영희는 여대생의 의사결정 종류와 참여 및 의사결정능력 정도와 가정환경과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김용미는 가정관리상의 구체적인 가사현상에 대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자녀는 이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부모의 리더쉽행동을 측정하였다. 한편, 김혜숙은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도 가족관계의

*분석자료 목록 참고할 것(자료출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정경영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부부중 어느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부부간의 관계구조를 분석하였다.

1983년 김윤경은 도시 가족내의 부부의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이 무엇인지 조사하였고, 의사결정의 참여정도와 공동합의결정정도를 파악하였다. 한편, 최영애는 가정생활주기의 각 단계별로 가정생활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부부중 어느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의 여부와 가족중 성장한 자녀의 의사결정 참여정도를 조사분석하였다.

1984년 김규원은 저소득층의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부부간의 의사결정 참여정도와 의사결정 유형을 살펴보고, 결정유형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조사하였다.

1985년 이형실은 역할구조의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접근하여 부부간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결정 유형 및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사회경제적 변인)을 살펴보고 성역할태도와 결정유형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윤현봉은 가족구조가 핵가족으로 변화함에 따른 부부간의 권력관계의 유형을 조사하였으며, 이영숙은 부부간의 권력관계와 부부간에 교환되는 사랑이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이경희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Jeddah) 시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부부중 어느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조사하여 부부간의 권

계구조를 분석한 바, 젊은 연령층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실혼생활에 대단히 만족한 가족일수록 공동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한편, 유경희는 도시와 농촌의 가장(家長)을 대상으로 부부의 의사결정 유형을 조사분석하여 가정의 의사결정 참여도와 결정권이 어느 정도인가를 도시·농촌별로 분석하였다.

1986년은 김홍은은 Rodman의 이론에 근거하여 현대 산업사회에서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경제적 자원과 관련지어 부부가 가진 자원과 권력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1987년 이영희는 핵가족 주부를 대상으로 실제적인 의사결정 영역에서 친정부모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이며, 또 시부모나 친정부모중 어느쪽이 더 영향력이 큰가를 조사하였다.

연도별로 논문들의 출처*를 살펴보면 대부분 각 대학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되었으며, 1975년 이후 부터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시도되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내용별

대부분 연구들의 공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변인과 관련하여 가정생활, 경제생활, 자녀문제,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기타 일반 생활영역의 결정 및 행동에 대한 의사결정 참여 정도와 그에 따른 의사결정 유형 및 부부간의 권

* 연도별 분석논문 출처

년 도	출 처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각대학 학위논문	기타학술지	계
1960	.	.	.	1	1
1970 ~ 74	.	.	.	2	2
1975 ~ 79	1	.	4	4	9
1980 ~ 84	1	1	5	3	10
1985 ~ 현재	2	1	7	2	12
계	4	2	16	12	34

력구조를 주로 다루었다(표 1-1 참조).

사회경제적 변인을 중심으로 가족내 의사결정 참여도와 의사결정권 및 권력구조를 조식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양계성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핵가족 부부의 의사결정에 시가 및 친가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이영희 1987)도 있다. 이밖에 사회경제적 변인외에 정서적 자원(예; 사랑)과 부부간의 권력관계를 조사한 연구(이영숙 1985), 부부간의 의사결정 유형뿐만아니라 부모자녀간의 의사결정의 유형등 가족 권위구조 유형을 조사한 연구(이은숙 1977; 김복길 1978; 김용비 1982)도 있다.

내용별로 살펴본 결과 과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크게 7개 영역에서 의사결정 참여도 및 유형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볼때 부부간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인이 의사결정 참여정도가 과거에 비해 많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 참여도가 증가했다고 해서 반드시 가정생활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부 자신이 스스로 인지한 지위에서 적절

하게 공동참여를 하고 결정할 수 있을때 주부가 만족을 더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증가는 가정내 시위향상 및 공동 결정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영역에 따른 성별분업의 심화와 부인의 과중한 역할 부담등 부정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다(김윤경 1983, p47). 그러므로 부부간의 역할구조를 고려하여 경향을 분석하는 일이 필요하다.

의사결정권으로 본 권력구조의 유형은 대부분 자율형과 일치형의 성격을 띠는 경향이 많았다. 시대별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이유는 조사대상자의 지역차이 및 가치관의 차이 또한 연구방법상 영역할 부담을 내포한 질문지 구성 때문으로 생각되며, 전체적으로 전통적인 남편우세의 지배적인 형태에서 부부 평등형으로 변화해 가는 추세는 일반적으로 가정생활내의 의사결정시 가족권력구조가 평등주의적 민주화를 지향해가는 때문으로 사려된다.

3) 연구방법별

연구방법은 조사연구가 전체의 90%이상으로 가

표 1-1. 의사결정 연구의 내용별 분류

영역별	내용
가정생활	시가와 친가와와의 관계, 시부모와의 동거여부, 가정부 고용, 남편 직장변경, 이사, 가족계획, 시장보기, 설것이, 행정관서 일보기, 이불 개키기.
경제생활	주요 재산매매, 거액의 현금관리, 저축방법, 일용품 구입, 경조금액, 자동차 선택, 보험여부.
자녀문제의 생활	자녀수 결정, 진학, 취직문제, 결혼문제, 용돈관리, 자녀교육(일반예절), 남편·가족원 의복구입, 부인의상선택(외출시).
식생활	식단결정, 손님초대, 가족잔치, 가족동반 놀이음식, 혼분식 결정, 김장, 장담그기.
주생활	주택구입, 가구구입, 실내장식, 도배, 집수리.
가타일반생활	부인의 취업여부, 부인의 가외활동, 교양도서 신문구독, 라디오·TV프로 선택, 공휴일 계획, 파티참석.

*양계성 성향이란 물리적으로 분가하여 부부 중심의 독자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가족기능수행시에는 확대가족적 성향을 발휘하여 시부모나 친정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을 말한다.

장 많이 행해졌고 질문지법과 면접법을 병행한 연구(문승규 1967)와 문헌고찰을 한 연구(고도임 1980) 등이 있다.

연구대상은 부부를 조사한 경우 5편(윤복자 1976; 이영숙 1985; 윤봉현 1985; 이형실 1985; 김홍은 1986), 부모와 학생을 조사한 경우 4편(이은숙 1977; 임정희 1981; 안영희 1982; 김용미 1982)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지역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지방에 거주하는 주부 및 도시와 지방을 비교한 경우가 7 편, 외국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2편등이 있다.

논문의 자료처리를 위해서 사용된 통계종류는 1970년대에는 백분율과 χ^2 검증을 사용하였고, 1980년 이후에는 여러 검증방법(t-test, F-test)과 상관관계를 이용하였다. 다변량분석과 요인분석을 사용한 연구는 각 1편씩에 불과하였다.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구조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며,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변인들의 상호작용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다변량분석 기법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어야 하겠다.

그러나 고급통계방법만을 선호할 것이 아니라 연구의 특성이나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선택되어야 하고 단계별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분석된 연구방법의 대부분은 질문지법을 이용하였는데 이의 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질문지가 선다형, 또는 ○, ×형이어서 외형적인 정보만을 얻기가 쉽다. 둘째, 응답이 실제 권력구조가 아닌 응답자의 인지만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아내와 남편의 인지차이가 의사결정의 규범적 패턴과 희망하는 패턴에 영향을 받아 실제 권력구조와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윤현봉(1985, p31)은 각 배우자가 지닌 상

대적 자원(수입, 연령, 금전관리권, 부인의 취업, 결혼만족도)의 양이 자신의 권력의 양에 비례한다고 한 Blood와 Wolfe의 상대적 자원이론은 권력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의사결정의 횡수”라는 변수가 측정상 많은 결함을 지녔으며, 권력을 실제행동으로 나타난 결과적 측면에서만 분석함으로써 잠재적 세력의 측면을 무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때, 대부분 Blood와 Wolfe의 연구를 바탕으로 결정권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으나,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방법론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권력구조 유형 분류시 절대성의 문제, 이는 질문항목에 대해 동등한 점수를 준다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질문지 내용의 설정시 부부간의 가치관 차이, 개인차, 남녀역할상의 비중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의사결정 영역에 대한 표본추출의 대표성의 문제, 이는 남편 또는 부인의 결정영역에 속하는 내용을 편파적으로 응답이 유도되도록 질문항목을 만드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고 본다. 셋째, 한지역에서의 결과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는 연구의 제한점으로 많이 제시되고 있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문제로서 응답자의 지각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의 권력구조를 나타내었는가가 의문점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또한 부부간의 의사결정 유형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가정생활내에서 의사결정 요구상황을 모두 포괄하는 더욱 정교화된 척도개발이 요망되며, 이에따라 부부 및 가족원의 인식 및 상호관계를 체계있게 설명할 수 있고, 가족의 권력구조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IV. 의사결정 및 권력구조의 특성

1) 의사결정 및 권력의 개념

의사결정이란 관리를 구성하는 핵심적이며 기초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다. Gross, Crandall 및 Knoll(1980, p127)은 의사결정이란 가치와 목적에 의해 동기가 발생되고 기준에 의해 검토되어 자원의 사용과 창조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였으며, Wolfe(1959, p114)는 주어진 상황속에서 일련의 대안중 선택하는 행동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Scanzoni(1979)는 의사결정이란 흡인력(Attraction), 교환, 교환규칙, 분배의 공정, 문제해결, 최대의 효율, Power, 신임, 커뮤니케이션, 갈등, 적의, 폭력등의 지속적인 과정에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하였으며, Nickell, Rice 및 Tucker(1976, p85)는 의사결정이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대체적 수단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인간의 합리적인 행동으로, 이정우(1980, p8)는 의사결정을 주어진 문제상황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결정하는 의향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러가지 행동중에서 특정한 행동을 선택하는 것. 즉, 어떤 문제들을 내포하는 상황속에서 특정의 문제를 규정하고 발견해내서 가치관이나 기준에 비추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下에 취할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정관리의 일부분이라고 하였다. 임희규(1979, p8)는 의사결정을 영향력이나 권위가 내포된 권력의 범주라고 정의하였고, 고도임(1980, p4)은 한 가족단위나 개인으로 무엇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해결해야 할 방법을 결심하는 것으로, 이형실(1985, p18)은 일정한 상황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행동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가족의사결정을 결정의 내용, 결정사항이 수행되는 과정 및 의사결정과과정에서 각

가족원이 수행하는 역할등 세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은 가정의 성격에 따라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가족의 권위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아니라 가족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정확한 의사결정이 요청된다.

Wolfe(1959)는 권력이란 두명이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한집단의 역동적이고 상호작용적인 구조적 측면을 분석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하였으며, Sprey(1979, p137)는 “바라는 목표나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 또는 “타인의 복종을 강요할 수 있으며 타인의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하였다. 임희규(1978, p12)는 권력구조란 두 배우자가 시간, 정력, 금전, 시설물등의 자원을 분배하는데 있어서 행사할 수 있는 상대적인 영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윤현봉(1985, p8)은 양인(兩人)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실질적, 잠재적 능력으로서 자신의 소망, 만족을 위해 상대방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어떤 현상의 총체라고 하였다.

따라서 권력은 상대방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사결정능력과 권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의사결정 및 권력구조의 특징과 종류

가정관리는 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가족원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자원을 잘 운영하는 것으로 목표지향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리행동은 올바른 가치판단과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자의 책임이 뒤따르는 지적 정신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이정우 1981, p149). 또한 가정관리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미래 행동방안에 대한 선택, 결정행위에서 야기되는 수행(performance)의 결합을 의미하며, 많은 관련된 의사결정에 의

해서 구성되어진다(Schalter, JD 1976 93-98).

이와같이 의사결정은 가정생활에서 서로 의존하는 결정들을 취급하는 관리과정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생활주기별, 가족제도 및 가족의 가치관, 가족구성원의 성격, 양상, 부부간의 연령, 학력, 수입 및 주부의 취업여부등 사회경제적인 요소에 의하여 달라지고 또 문제의 긴급·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장명욱(1984, p124)은 의사결정의 특징을 첫째, 정보의 효율적 활용. 둘째, 창조적 해결의 가능성 증대. 셋째, 집단압력에 의한 독자적 결정의 방지. 넷째, 공통적 의식을 얻기 위한 부단한 창의·노력의 요구. 다섯째, 가족집단이 갖는 제 정보 지식·경험에 의한 의사결정의 신뢰성 증대등으로 보고 가족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의사결정 참여는 각자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특히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수부들의 목표나 가치는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표가 된다. 그러므로 가족원의 욕구 충족을 만족시키기 위한 중심적, 종속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선택되어지는 결정(decision)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고도임 외 5인, 1978, p56). ①계속적으로 만족을 준 결정 ②직접 만족을 주었으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필요했던 결정. ③만족을 주지 못한 결정. ④목적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곤란했던 결정. ⑤환경에 응하여 행동하고 결정이 없었던 것. ⑥우리의 목표들이 분명하며 쉬웠던 결정등이다.

Gross 외 2인(1980, 128-150)은 의사결정의 종류를 사회적 의사결정, 경제적 의사결정, 기술적 의사결정, 정치적 의사결정, 법적 의사결정으로 분류하였으며, 또한 의사결정의 이해태도에 따라 관습적 의사결정(programmed decision)과 비정형적 의사결정(non-programmed decision)으로 구분하고, 결정의 상호관련적 특성에 따라 중심결정과 종속결정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의사결정유형에 관한 분류를 연구자별로 살펴보면 표 1-2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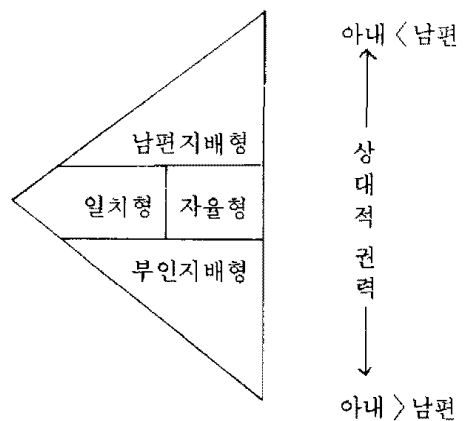
한편, Gross 외 2인(1980, p136)은 의사결정과정을 첫째, 문제를 발견하여 정의하는 단계. 둘째, 정보의 수집 및 가능한 행동과정의 설정. 셋째, 각각의 행동과정에 대한 유효성의 추정. 넷째, 최선의 행동과정 선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족들은 각각 개인적인 필요 선택, 지식, 기대에 따라 개별적인 의사결정을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다른 가족구성원과의 관계에 의하여 항상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도임(1980)은 의사결정의 문제점으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확보의 곤란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결정의 상대적 중요성. 의거해야 할 지침표의 부재(목표가치의 불투명)등을 지적하였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주로 의사결정은 권력구조, 가족권위, 가족의 권력, 영향력 등과 유사어로 혼용되고 있으나 흔히 의사결정만이 가족의 권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측정되어왔다.

권력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권력관계는 정적인(static) 현



높다 ← 권력의 공유정도 → 낮다

그림 1. 부부 권력관계 유형

표 1-2. 의사결정 유형 분류

연구자	Wolfe (1959)	Herbst (1960)	Turner (1970)	이호재(1974)	Gross, Crandall & Knoll (1980)
의사결정 유형	남편지배형 부인지배형 협동형 자율형	남편단독형 부인단독형 부부공동형	일치적 의사결정 조정적 의사결정 사실적 의사결정	민주형 권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의사결정 경제적 의사결정 기술적 의사결정 정치적 의사결정 법적 의사결정 관습적 의사결정 비정형적 의사결정 중심 결정 종속 결정

상이 아니라 동적인(dynamic)인 현상이며, 동시에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개인적 태도로서가 아닌 체계적 특성(system property)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Body C 외 2인, 1976).

V. 의사결정과 권력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인

대부분 의사결정과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는 사회경제적 변인을 중심으로 고찰되어왔다.

1) 연령

연령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부부 공동결정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임희규 1978; 김복길 1978; 최영애 1983; 이경희 1985; 유경희 1985) 또한 연령이 많을수록 핵가족 부부의 의사결정시기가 및 친정부모들의 영향력은 약화된다고 하였다(이영희 1987).

70~80년대 연구결과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지만 시대에 따라 구애됨이 없이 연령은 의사결정 참여도 및 유형을 측정하는 변인이 되어왔다.

2) 학력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남편 혼자 결정하는 경우가 적고,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많이 참여하는 경향이 대부분 이었다(서병숙 1977; 김복길 1978; 김윤경 1983; 최영애 1983; 김규원 1984; 이경희 1985). 반면에 황효숙(1978)은 남편의 학력이 아주 높을 경우에 부인의 결정권이 크다고 하였으며, 주부의 학력은 의사결정 참여도에 유의한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유경희(1985)는 가상(家長)의 학력이 높을수록 의사결정 참여와 부부합의 정도가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서병숙(1977)은 가정생활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부부간의 학력이나 가족관계 만족도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의사결정이 심리적, 지적 영역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공동합의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연구결과는 높은 교육수준이 의사결정을 공유하도록 부부간의 태도와 실제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볼 수 있고, 개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사결정권이 많아지는 것은 자원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따라서 학력은 의사결정 권한을 좌우하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3) 소득

이한기(1977)는 소득이 높을수록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정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김규원(1984)은 저소득층에서는 수입이 부부 합의결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즉 수입이 증가할수록 일률적으로 부부 합의정도가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저소득층에서 주부의 수입은 부인의 권한을 높여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4) 결혼지속년수

결혼 지속년수가 짧을수록 합의결정이 이루어지며(최영애 1983; 김규원 1984), 노년기 즉 결혼 지속년수가 길수록 부인결정권이 크다고 하였다(최영애 1983; 김윤경 1983).

5) 사회경제적 지위

이온죽(1977)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지위는 권력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김윤경(1983)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부인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반면에 서병숙(1977)은 생활정도의 차이는 의사결정과 상관이 없다고 하였다.

6) 취업여부

황효숙(1978)은 주부가 직업을 가짐으로써 의사결정에 더 적게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김윤경(1983), 이형실(1985)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취업 여부는 의사결정 유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7)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부가 합의결정을 하는 경향이며, (김혜숙 1982; 김윤경 1983; 이경희 1985)가족관계에서 불만족한 가족일수록 의사결정 유형이 남편지배형이라고 하였다(서병숙 1977).

이밖에 사회경제적 변인이외에 부부 상호작용적 요인으로 부부간 커뮤니케이션 상태, 직업만족도등이 의사결정 참여 및 권위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측정되어져 왔다.

Ⅶ. 결 론

가정경영의 핵심이며, 지적·정서적 영역인 의사결정 및 권위구조에 관한 연구를-1960년대 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발표된 연구논문 34편-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현대사회는 수직적 관계인 부부관계가 수평적 관계로 변모해감에 따라 가치관 및 가정내 역할 수행, 의사결정 행동에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된다.

기존의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몇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대별로 볼때 의사결정과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는 실제로 1975년이후 부터 활성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가정관리학의 다른 영역보다는 게재된 논문편수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둘째, 내용별에서는 일반적인 가정생활내의 영역에 관하여 부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참여정도와 그에 따른 결정권을 조사한 경우가 많았다. 셋째, 연구방법별로는 조사연구방법이 가장 많았으며 앞으로 질문지법 이외에 면접법과 문헌고찰 및 사례연구등이 요망된다. 자료처리면에서 과학적인 자료 수집 및 연구목적과 특성에 적합한 도구사용이 필요하다. 한편 연구대상이 대부분 주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화 할 수 없으므로 부부간 또는 부모-자녀간등으로 연구범위 확대가 필요하며, 연구가 지역단위로 행해졌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가 단편적인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내용면에서 전체적인 가정생활 영역 뿐만아니라 관리시간 및 에너지, 금전, 인적관리, 여가선용등 세부적인 영역으로 분리해서 의사결정 참여 및 결정권을 조사 연구하여야겠

다. 또한, 가정생활에서의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상태나 결정구조를 측정하는 연구보다는 실제로 구체적인 문제에 당면했을 때 어떠한 과정으로 어떻게, 누가 최종 결정을 하는가, 그 결정에 대한 행동후 결과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둔 연구가 요망된다.

효과적으로 대화를 잘하느냐의 능력여부는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반영되며, 정확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은 상호개인적인 신뢰감을 증대시키므로, 행복하고 합리적인 가정관리를 위해 주부들의 창의성과 의사결정 능력을 발휘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주부들의 뚜렷한 목적의식과 관습적 행동의 검토 및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고도임 외5인 : 가치와 의사결정 · 한국가정관리학 연구회역 1978
- 2) 이정우 : 가정관리 성취에 관한 연구 · 숙명여대 박사논문 1980
- 3) 이정우 : 가정관리연구 · 서울 : 수학사, 1981.
- 4) 윤숙현 · 문숙재 : 가정관리의 체계적 접근을 위한 시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4권2호, 1986 9~24.
- 5) 장명옥 : 가정관리학 · 서울 : 교문사, 1984
- 6) 황효숙 : Participation in Family Decision Making by Korean Home Managers, *Utah State Univ., m.s* 1978.
- 7) Blood & Wolfe : *Husband and Wives* : N.Y : 1960
- 8) Boy CR & Bahr SJ : A Theory of Power Relationships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8, No 4 : 619~628, 1976
- 9) Gross IH, Crandall EW & MM Rnoll :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Prentice Hall. 4ed. 1980
- 10) Heer DM : The Measurement and bases of family power : *An overview. Married Family Living*, Vol. 25, 1963
- 11) Hill EW : An analysis of the decision making of couple communication instructor Couple. North Carolina Univ., Ph. D., 1981
- 12) McDonald GW : Family Power : *The Assessment of a Decade of theory and Research 1970~1979*, *Family Research 1970~1979*. 1980
- 13) Nickell P, Rice AS & SP Tucker : *Management in Family Living*. John Wiley & sons, INC., N.Y., 1976
- 14) Paolucci, Hall & Axinn : *Family Decision Making : An Ecosystem Approach* ; Wiley, 1977
- 15) Rodman H : Martial Power and the Theory of Resource in Cultural Context ; Detroit : *Merill-Palmer Institute*, 1970
- 16) Safilios-Rothchild : A Macro and Micro examination of family power and lo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8, No 2 : 355, 1976
- 17) Scanzoni I : A social system analysis of dissolved and existing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30 : 452~461, 1968
- 18) Schalter JD : The management process and its core concepts, *Journal of Home Economics*, Vol. 59., 1967
- 19) Sprey J : Conflict Theory and the study or marriage and the family, in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Y. : 1979
- 20) Wolfe DM : Power and Authority in the Family. *Studies in Social Power*. 1959